

### 美, 인터넷 '관할권' 3년 연장키로

미국이 국제사회의 반발과 관련해 그간 유지해온 인터넷 관할권을 3년 연장하는 대신 자율성을 적극 권장하는 식의 절충 입장을 취했다. 파이낸셜 타임스와 AP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달 29일(이하 현지시간) 인터넷 흐름을 관장하는 국제 민간조직인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와 1일자로 발효하는 3년간의 새로운 협정을 체결했다.

캘리포니아주에 소재한 ICANN은 독립적인 성격의 기구로 지난 1998년 미국 주도로 결성된 후 전 세계 인터넷 주소를 관리하면서 사실상 미 상무부의 감독을 받아왔다.

AP는 새 협정에 따라 ICANN이 미 상무부에 운용 내용을 보고할 의무가 없어졌다고 전했다. 대신 인터넷 커뮤니티 전체에 대해 매년 보고할 의무가 주어진 것으로 설명했다. /연합뉴스

### 일과중 담배 "NO"

#### 호주정부, 금연조치 확산

노동자들이 작업장에서 일을 하다 허리를 펴고 담배 한대를 뽑아 물며 이마에 흐른 땀을 닦는 모습을 최소한 호주에서는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호주 정부의 한 부처가 직원들에게 일과 시간 중 흡연 금지 조치를 내림에 따라 이 같은 금연조치가 정부 내 다른 부처는 물론이고 호주 전역의 모든 작업장에도 곧 확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호주 산업·관광·자원부는 오는 2일부터 일과 중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금연조치를 2천여 명의 직원들에게 하달했다.

금연조치에 따르면 직원들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일과 중 담배를 피우는 게 전면 금지되는 것은 물론이고 건물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도 금지된다.

만일 직원들이 이 같은 금연조치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벌칙을 받게 되며, 계속해서 금연조치를 어길 경우는 해고될 수도 있다. /오른랜드=연합뉴스

# 사랑의 매? 美 학교 체벌 확대 논란

## 일부 학교 합법화 시도...반발 움직임 거세

미국 내에서 학교 내 체벌을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다시 나타나면서 체벌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에서 교내 체벌은 1970년대 이후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보여 28개주가 교내 체벌을 불법화했지만 아직도 남부와 중서부 지역에서는 교내 체벌이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종교적 보수성이 짙은 시골로 갈수록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2~2003학년 연방정부의 통계

에 따르면 교내에서 체벌을 받은 학생이 30여만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70%는 텍사스와 미시시피, 테네시, 앨라배마, 아칸소주에서 발생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와 오클라호마주에서는 교내 체벌이 금지됐지만 주 전체로는 70% 지역에서 체벌이 허용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일부 지역에서 교내 체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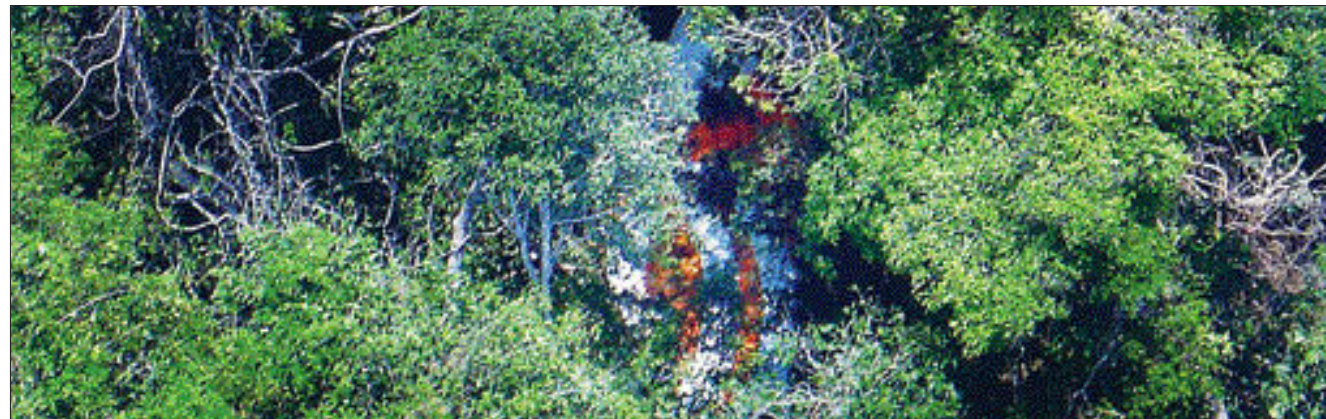
을 허용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델라웨어주에서는 비록 실패하긴 했지만 체벌을 다시 부활시키자는 움직임이 있었으며 텍사스주와 오클라호마, 미시시피주 일부 지역에서는 체벌이 다시 합법화됐다. 체벌 합법화 움직임에 찬성론자들은 절제된 체벌은 교육효과가 높다고 옹호하고 있으나 반대론자들은 체벌을 야만적이고

비교육적인 행태라며 비난하고 있다.

뉴햄프셔대학 가정연구소의 머리 스톨트스 소장은 "19세기 후반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았던 것처럼 더 이상 교내 체벌을 용납하지 않는 단계까지 사회적 진화가 이뤄졌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장 영향력 있는 신교 정통파 지도자이자 아동 심리학자이며 '포커스 온 더 패밀리' 창립자인 제임스 톱슨 등은 체벌의 교육적 효과를 강조하면서 체벌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뉴욕=연합뉴스

### 브라질 항공기 공중 충돌



지난달 29일 오후(현지시간) 브라질 북서부 아마조나스 주 마나우스 시를 떠나 수도 브라질리아로 가던 중 아마존 지역에서 추락한 브라질 골(GOL) 항공기 소속 보잉-737기의 잔해. /AFP=연합뉴스

# 아마존 추락 탑승자 155명 전원 사망

지난달 29일 오후 아마존 지역에서 추락한 브라질 골(GOL) 항공기 소속 보잉-737기의 승객 149명과 승무원 6명 등 탑승자 155명이 전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브라질 공군이 밝혔다.

이번 사고는 사망자 수에서 브라질 사상 최악의 항공기 사고로 기록됐다.

전날 밤부터 항공기 수색작업을 벌여온 브라질 공군은 이날 오후까지 200여명의 구조대와 5대의 항공기, 3대의 헬기를 동원해 현장을 조사한 결과 생존자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군 관계자는 "사고 지점이 워낙 오지

인 탓에 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20시간이 지나야 현장에 접근할 수 있었다"면서 "현장에 투입된 구조대원들로부터 생존자를 발견할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함께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는 경찰로부터 참혹한 현장 모습이 속속 전해지고 있다.

사고 지점을 관할하는 마토 그로소 주 페이소토 데 아제베도 시 경찰은 "사고 현장은 사망자들의 조각만 시신과 항공기 잔해가 어지럽게 뒤엉켜 참혹한 모습을 하고 있다"면서 "이 곳에서 생존자를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브라질 공군과 항공당국 관계자들은 사고 항공기가 적어도 3만6천 피트 상공에서 수직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체와 탑승자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사고 항공기는 전날 오후 3시35분께 브라질 북서부 아마조나스 주 마나우스 시를 떠나 수도 브라질리아로 가던 중 브라질산 13인승 소형 제트기 항공기와 공중에서 충돌한 뒤 오후 4시48분께 통신 두절과 함께 마토 그로소 주 북부 페이소토 데 아제베도 시에서 남동쪽으로 200km 떨어진 지점에 추락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 美·中 "유엔 사무총장 선출 10월말 종결"

#### 潘 장관 유리...4차투표가 분수령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국은 코프 아난 현 유엔 사무총장 후임자가 복잡한 유엔 업무를 원활히 인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가급적 사무총장 선출을 조기 종결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소식에 정통한 한 외교소식통은 지난달 29일 "차기 유엔 사무총장 선출에 결정적 영향력을 가진 미국과 중국은 세계 최고의 외교관인 유엔 사무총장 후임자 문제를 가급적 빨리 마무리짓자는 입장"이라며 "존 볼턴 주유엔 미 대사의 발언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아난 사무총장이 물러나기 2개월여 전인 10월 중반,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후임 사무총장 선출 문제를 매듭지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관계자들도 반 장관이 2일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푸른색)과 10개 비상임이사국(흰색) 각 1표씩을 실사될 4차 투표에서 9표를 가진 상임이사국 전부의 지지를 받고 1위를 차지한다면 사실상 사무총장으로 선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워싱턴=연합뉴스

### 현장과 시각

## 에드벌론보다는 실속을



박치경  
정처부 차장

지난달 29일 한명숙 국무총리와 10여명의 각료가 참석해 열린 제2차 여수세계박람회 정부유치지원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여수 중심가는 각종 홍보물로 뒤덮였다. 태극기와 여수 시기, 박람회 심벌깃발이 요란하게 나부꼈고 엑스포 홍보관이 있는 오동도 앞 바다에는 요트와 범선까지 띄워져 마치 유치 성공 잔치를 벌이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켰다.

회의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선물 보따리가 쏟아졌다. 한 총리는 이날 "유치성공을 위해 가능한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박람회 준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또 정부는 올해 엑스포 유치를 위해 필요한 순천~여수간 국도 17호선 및 철도사업에 1천688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내년엔 2천460억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 광역교통망인 전주~광양간 및 목포~광양간 고속도로사업에 올해 3천720억원, 내년엔 4천250억원을 각각 배정키로 했다.

그러나 한 해를 넘겨보면 회의의 무게는 조금 가벼워진다. 총리가 현장에서 직접 회의를 주재하며 보여준 의지는 높이 살만했지만, 광역 교통망인 전주~광양간·목포~광양간 고속도로사업은 이미 수년 전부터 진행중인 계속사업인 데다 며칠 전 이들 사업을 위한 내년 국고지원 예산 확보내용이 알려진 터라 빛이 바랬다.

회의를 앞두고 여수시에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는 질문을 던져 보았다. 담당 공무원은 "엑스포 유치 작업이 전남도만 벗어나 어느 나라 일이라는 반응이 가장 어렵다"는 답이었다. 총리까지 나서 적극적인 유치 지원을 약속을 했지만 여수 엑스포가 아직 여수와 전남도만의 일임을 부인할 수 없는 대목이다.

여수 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한 최대 관건은 외교 전에 있지만 대비책을 잘 세우고 있는 지도의문이다. 최근 만난 고위 외교관은 "유치 경험국으로 떠오른 모로코(개최 후보지 탕헤르)가 아랍권에 속하기 때문에 오일 달러를 무기로 한 반아랍권의 결속이 주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여기다 엑스포 개최지 결정 업무를 관장하는 세계박람회 사무국(BIE)의 로세르 탈레스 사무총장은 여수지역의 적조발생 등 환경과 주변의 양식업에 따른 경관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2010년 엑스포 유치를 앞두고 2002년 상하이에 당했던 패배의 악몽이 재현되지 말란 법도 없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처럼 원론적인 해외 유치 전략이나 지원대책같은 에드벌론을 띄우기 보다는 국내의 실정을 감안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내놓았더라면 지역주민들이 정부를 바라보는 시선은 훨씬 미더웠을 것이다.

/unipark@kwangju.co.kr

### 브라질 대선 결선 갈듯

#### 여론조사 희비 교차-롤라 진영 긴장



롤라 대통령(왼쪽)과 알키민 전 상파울루 주지사

브라질 대선을 하루 앞둔 지난 달 30일 밤(현지시간) 발표된 2개 유력 여론조사기관의 조사 결과에서 결선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야 대선캠프에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이날 여론조사기관인 데이터폴라(Datafolha)는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이 46%, 제랄도 알키민 전 상파울루 주지사가 35%의 지지율을 기록해 결선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발표했다.

결선투표 실시 가능성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룰라 대통령 진영을 긴장시키고 있다. 또 다른 여론조사기관인 이보페(Ibope)가 내놓은 조사 결과에서도 룰라 대통령이 45%, 알키민 전 주지사가 34%의 지지율을 기록해 결선투표 실시 여지를 남겼다. /상파울루=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업소용 병·난방기' (Industrial Heating Equipment) by Senchuri. Features a man pointing to a list of benefits: 152만원 파격지원, 75% 연료비 절감, 무보증 장기일부. Contact number: 1588-8717.

Advertisement for '뱃살' '변비' (Belly Fat/Bowel Issues) treatment. Claims to reduce belly fat by 23% and improve bowel health. Includes a photo of a person and detailed text about the treatment's effectiveness.